

金銅水晶嵌裝燭臺

秦弘燮

新羅時代に 金屬工藝가 非常히 발달하였음은 지금에 傳하는 遺物을 通하여 充分히 推察할 수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古墳에서 發見되는 各種 裝身具를 비롯하여 容器、馬具 等에서 發揮된 想像하고 創造的인 技法도 놀라운 바 있거니와 統一期에 이르러서는 聖德大王神鍾 같은 大傑作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傑作의 出現은 當時의 工藝技術이 이에 그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니 이 외에도 優秀한 作品이 相當히 產出되었을 것은 能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不幸히 우리는 地下에 埋葬되었던 古墳의 副葬品 或은 地上에 傳하는 若干의 例를 除하고는 實例를 對하기 어렵다. 그도 統一期 新羅의 金屬工藝品은 一、二의 梵鍾과 石塔內에 藏置되었던 若干의 舍利莊嚴具에서 볼 수 있을 뿐 그 例가 매우 드물다고 하겠다. 佛國寺三層石塔、感恩寺址西三層石塔、松林寺五層塔、益山王宮里五層石塔 等에서 出土된 舍利莊嚴具를 通하여 우리는 統一新羅時代의 工藝技術이 더욱 幅 넓고 무게 있는 作風으로 發展하였음을 보아 온 바 있었다.

이와 같은 狀況 속에서 이번에 새로이 注目を 끌게 된 이 燭臺는 新羅人의 洗練된 手法과 寬厚한 作風을 다시 한번 誇示한 貴重한 作品인 同時에 아직까지 例가 없었던 燭臺라는 點에서도 매우 稀貴한 例가 되었던 것이다. 各部에 아름다운 比例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보기 드물게 활발한 線으로 構成되었고 全面에 陽刻陰刻의 紋樣이 施刻되었을 뿐 아니라 上·下 四十八個의 紫水晶을 곳곳에 嵌裝하여 華侈함이 이를 따를 作品이 없다. 豪華로우면서도 品位를 잃지 않았고 繁多로운 듯 하면서 堂堂한 量感을 지닌 當代 第一級의 工藝品이라고 하기에 주저할 사람이 없을 것

이다.

全高 三六·八 cm의 이 燭臺는 그 基本形이 統一期 新羅의 石燈形式을 따르고 있음은 그 外形에서 곧 느낄 수 있다. 石燈에서 보듯이 下臺와 上臺 그리고 그 사이의 竿石、火燭 대신 초꽃이 있고 下臺 밑에는 따로 받침을 마련하였다. 다시 그 形式과 各部의 彫刻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最下部的 받침은 六花形의 環形을 이루었고 側面과 上面에는 細線으로 花紋이 陰刻되었다. 이 環形은 下臺에 該當하는 水盤形과의 連結은 六個의 獸脚形 다리로 이루어졌다. 위와 連結되는 獸面에 該當하는 部分에는 三面에 花瓣이 表示되었고, 獸蹄에 該當하는 部分은 寶相花形으로 表現되면서 위로 들려 귀꽃같은 形態가 되었으며 이 全體를 U字形으로 꾸부러서 위에는 獸面 바로 위와 아래는 U字形으로 꾸부린 屈曲部와를 아래 위에서 各各 못으로 連結하고 있다. 이와 같은 連結方法은 이 燭臺에 立體感을 주었을 뿐 아니라 壯重한 感覺을 一層 더 하게 하는 效果를 내고 있다. 이 받침은 徑二·五 cm 높이 九·六 cm이다.

이 連結에 있어서 下臺 밑에는 따로 六花形 銅板이 있어 下臺는 그 위에 놓여 있다. 下臺는 六花形의 水盤形으로 孤線을 그리며 隆起된 縁은 縁이 있고 안은 약간 얇아졌다. 縁의 周緣은 花形을 이루었고 몸에는 위로 두드리지게 打出된 花脈이 表現되었다. 上 上面에는 매우 활발한 花文이 陽刻되었고 안에 陰刻으로 花紋이 滿鏤되었으며 그 間地에는 魚子紋으로 채워져 있다. 이들 彫鏤는 陽刻과 陰刻을 效果 있게 配置하여 萬若 表面에 입힌 鍍金이 남아 있었다면 그 效果는 一層 더 하였으리라 고 생각된다. 이 같은 豪華로운 效果는 前에 六個의 紫水晶을 嵌裝함으로써 더욱 빛나고 있다. 紫水晶은 三條의 放射形 陰刻線이 있는 角을 축인 三角形이고 이것을 蓮瓣形의 銅板으로 싸서 三個의 못으로 固定시키고 있다. 이 下臺의 經은 二七 cm이다.

上臺의 形式은 陽刻과 陰刻의 彫飾、紫水晶의 嵌裝 等의 手法 등 下臺와 同一하나 徑이 二·三 cm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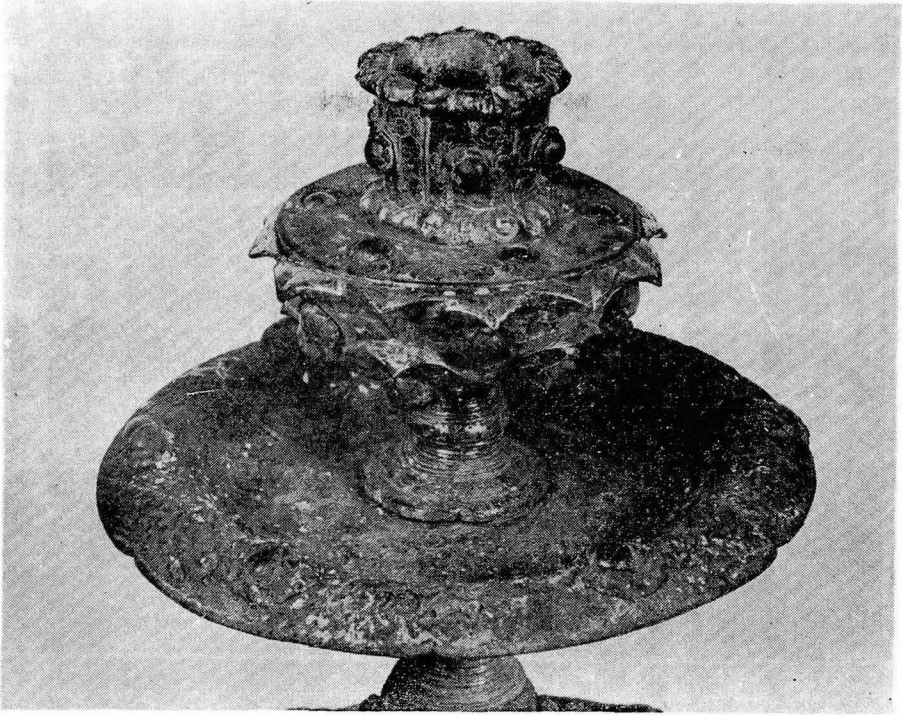
이 下臺와 上臺를 連結하는 竿柱는 石燈에서 鼓腹形이라고 말하는 形式과 同一하다. 그러나 石燈의 竿石보다는 훨씬 變化가 많다. 먼저 竿柱의 下端은 半球形이 되어 下臺 中央에 連結되었는데 역시 六花形이고 各各



金銅水晶嵌裝燭臺一雙(權尚河氏所藏)



金銅水晶嵌裝燭臺



金銅水晶嵌裝燭臺上臺



金銅水晶嵌裝燭臺下臺

陰刻으로 꽃송이 하나씩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 蓮花形의 銅板으로 卍半球形 紫水晶을 못一個로 固定시켰으며 그 위에는 작은 蓮花紋帶가 둘러 있다. 竿柱 中間에도 六花形 璐瑤部가 있고 花瓣을 意味한 隆起된 곳에는 細線으로 花文이 各各 陰刻되었고 그 中央에 蓮瓣에 쌓인 紫水晶 하나씩이 附着되어 있다. 위로 올라가 上臺에 닿는 곳은 넓어졌고 中央의 마디를 中心으로 그 上·下에도 中央部에 작은 마디가 있어 竿柱全體의 모양이 變化가 있어 律動的이다. 이 두 곳의 작은 마디 表面에도 各各 花文이 陰刻되었고 마디와 마디 사이의 잘룩한 네 곳에는 平行細線으로 各各 橫帶를 돌렸다.

上臺 위에는 밑의 竿柱를 縮少한 形式의 얇은 柱形 받침이 있고 그 위에 초꽃이를 받치는 仰花形 받침을 마련하였다. 작은 柱形 받침에는 二重의 六花形이 있고 그 表面에 花文을 陰刻한 下端과 小仰蓮을 周廻한 上端 사이 中央에 마디가 하나 있고 그 上·下에는 밑의 竿柱에서와 같은 形式의 平行細線의 橫帶가 쳐 있다. 이 柱形 위에 있는 仰蓮形 초꽃이 받침은 六瓣의 重瓣 蓮花로서 蓮花의 形式은 蓮花라기 보다는 寶相華로 보아야 할 것 같다. 花瓣 瓣周의 裝飾은 分明히 瓦博에서 볼 수 있는 것과 同一한 形式으로 寶相華로 보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稀貴한 立體的으로 表現된 寶相華라고 할 수 있다. 이 重瓣의 寶相華는 瓣端의 反轉이 커서 그 밑의 構造가 靜寂한 感覺을 주는데 比해 動的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上·下의 花瓣 中央에는 蓮花形 銅板에 쌓인 半球形의 紫水晶이 하나씩 附着되어 있다. 이 仰蓮形 받침 上面은 別個의 銅板으로 막았으며 表面에는 六송이의 꽃을 陰刻하고 그 꽃송이 中央에 紫水晶 하나씩을 嵌裝하였으며 꽃송이와 꽃송이의 間地는 魚子文으로 메우고 있어 마치 蓮花의 子房같고 嵌裝된 紫水晶은 마치 蓮子와 같은 役割을 하고 있다. 이 仰蓮形의 徑은 一二cm이다.

이 子房 中央에서 六花形 圓筒이 솟아 초꽃이가 되어 있는데 上·下에는 雙頭의 花形 六개가 外反되어 마치 귀꽃같이 되고 밑은 仰蓮形 上面에 固着되었다. 圓筒의 各面에는 中央의 圓圈을 中心으로 周邊에 線刻이 있어 花形을 이루었고 間地는 魚子文으로 채워져 있다. 中央의 圓圈 위

에는 蓮花形 銅板에 쌓인 半球形 紫水晶이 하나씩 附着되어 있다. 圓筒 內部는 仰蓮形의 上面에 이르기까지 空筒으로 되어 있어 초를 꽂기에 適當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밑에 鐵釘頭가 보이고 下臺 底面에도 鐵釘이 나와 있는 점으로 보아 上·下를 鐵心과 鐵釘으로 固定시켰던 것으로 推定된다.

現在 이 一雙의 燭臺는 一部에 鍍金이 남아 있기는 하나 數個의 紫水晶이 逸失되었고 處處에 火中한 痕蹟이 엿보인다. 그뿐 아니라 그중一個는 두꺼운 銅鑊이 입혀 있어 火中한 다음 오랜동안 地中에 埋沒되어 있지 않았나 推測된다. 이와 같은 一部의 損傷이 있기는 하나 일지기 前例를 볼 수 없었던 傑作이 아닐 수 없다. 佛國寺 釋迦塔에서 發見된 金銅 舍利外函、銀製 舍利外盒에는 蓮花形 銅板으로 싼구술이 붙여 있어 燭臺의 手法과 類似하기는 하나 이 燭臺의 구술이 보다 크고 여러 곳에 嵌裝되어 더욱 호사로운 手法을 보여주고 있다. 外形이 나타내는 바 基本形式은 新羅統一期の 石燈 그 中에서도 華嚴寺 覺皇殿 앞 石燈이 代表하는 湖南地方에서 流行을 본 鼓腹形 石燈과 類似하며 이 燭臺가 室內에서 使用되던 것인만큼 밑에 따로 받침이 마련되었고 초꽃이 밑에 다시 仰花가 添加되었다. 高麗時代의 作品으로는 銅製 燭臺가 數座 알려져 있으나 어느 것이나 매우 簡單한 構造인데 比하여 이 燭臺는 年代도 훨씬 高古할 뿐 아니라 그 樣式과 手法이 數段 優秀하여 可謂 王者의 風이 있다. 어느 工匠의 精誠을 다한 會心의 力作이라고 생각된다. 이 燭臺는 慶州地方出土라고만 傳할 뿐 확실한 出土地點을 알 수 없음을 아까운 일이나 그 氣風이 果然 新羅의 首都 慶州에서 使用되었을 新羅의 工藝를 代表할 수 있는 傑作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이 燭臺의 製作年代는 그 樣式手法으로 보아 八世紀 後半으로 推定된다.